

「토오마스 C. 코크란」著

『美國의 經營制度』

—歷史的 展望 1900年~1955年—

Thomas C. Cochran; The American Business System

A Historical Perspective. 1900~1955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 viii+227

金 宗 炫

I

美國에서의 經營史研究는 넓은 意味에서 두가지 方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하버드」大學校 經營大學院에서 「그라스」(N.S.B. Gras)와 「라아슨」(Henrietta M. Larson)을 中心으로 해서 成立 發展한 『經營史』이며 다른 하나는 같은 「하버드」의 『學藝 및 科學』學部 大學院의 一部인 企業家史研究所(Research Center in Entrepreneurial History 1948年 設立)에서 「슌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와 「콜」(Arthur H. Cole)를 中心으로 해서 成立 展開된 『企業家史』이다. 같은 「하버드」大學校에서 成立해서 發展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두가지의 經營史研究는 그 目的과 方法에 있어서 상당한 差異가 있다. 즉 前者는 經營管理論을 基礎로 해서 經營의 發展過程을 經營內部에서의 經營者의 管理活動을 通해서 研究하려는 것이며 經濟史와는 다른 獨立科學으로서의 『固有的』經營을 志向하고 있는데 대해서 後者は 企業家의 創造的 活動을 通해서 經營發展, 나아가서는 經濟發展을 研究하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넓은 意味의 經營史에 包含되지 않는 窮極的으로는 새로운 方法으로 經濟史研究를 深化하고 그 內容을 풍부히 하려는데에 目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紹介하려는 『美國의 經營制度』는 後者の 立場에서 20世紀 前半期에 있어서의 美國의 經營發展過程을 展望한 것이다. 「펜실바니아」大學의 歷史學教授인 著者는 叙上한 企業家史研究所의 創設과 初期의 運營에 「슌페터」 「콜」 그리고 「젠크스」(Leland H. Jenks) 등과 함께 參加했고 企業家史에 관한 研究를 推進해 왔으며, 本書는 그 過程에서 나타난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附設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授.

하나의 成果인 것이다.

著者は 經濟史가 全般的인 發展에 있어서의 經營制度의 重要性和 企業家活動의 役割을 輕視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本書에서는 全般的인 發展에 있어서 密接한 關聯을 가진 諸要因을 새로이 比較 對照하고 技術的 및 工業的變化에 基本的으로 關聯해서 經營形態와 經營活動의 歷史를 考察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는 餘他的 美國文明과의 相互作用을 考察하려고 하고 있다. 著者は 『經營』(business)이라는 述語를 利潤獲得을 위해서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고 分配하는 社會制度라고 規定함으로써 그것을 『資本主義』와 同義로 解釋하고 있다. 그러나 著者は 資本主義는 社會主義와 같이 現在의 分析을 混亂시키는 史的意味가 들어있기 때문에 社會經濟的 變化를 結果한 人間과 機械와의 相互關係를 提示하는 包括的 述語로서 『經營』을 選擇했다고 말하고 또한 그것은 그에 의해서 惹起되는 基礎的인 變化가 社會的 效果를 가지는 人間活動을 意味하고 傳統的 經濟史에 있어서의 文化輕視와 非人間的 諸力의 過當한 重視를 匡正해 준다고 말한다. 本書에서 著者は 現代 美國의 經營制度 내지 經濟制度에 관한 보다 廣範한 새로운 綜合을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遂行하기 위해서 著者は 本書에서 各時期에 가장 「다이나믹」했던 諸要素 즉 技術・製造工業의 運營貯蓄量과 投資系路, 經營者와 經營制度의 性格, 福祉國家의 成長, 經營의 새로운 社會的 地位 및 責任을 論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經營變化의 諸要素를 論함에 있어서 著者は 本書에서 取扱되고 있는 時期를 1929年을 劃期로 해서 그 以前과 以後를 各各 第1部와 第2部에서 論하고 있다. 再言할 필요도 없이 1929年을 轉機로 해서 經濟의 自己調整思想에 基礎를 둔 自由主義 經濟體制는 政府의 統制를 받는 混合經濟體制로 轉換했던 것이다. 以下에서 本書의 內容을 간단히 考察하자.

II

第1部에서는 1900年~1929年의 經營發展을 當時의 經濟背景에서 論한다. 著者は 『經營者』라는 概念을 利潤目的으로 財貨 및 用役의 生産과 分配를 組合하기 위한 決定에 參加하는 사람이라고 規定하고 그들 『經營者』는 小企業에서의 그것으로부터 大企業의 그것에 이르기 까지 많은 種類가 있다고 指摘한다. 美國에 있어서의 經營者의 社會的 地位는 매우 높다. 그 理由로서 著者は 美國의 生活樣式과 生活水準의 上昇이 經濟活動에 基因한다는 것이 一般的으로 認識되고 있으며, 經營의 價値가 美國文化에 있어서 가장 넓은 一般的 要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와같은 價値觀의 根底에는 「칼비니즘」(Calvinism)의 禁欲的倫理와 「프론티어」(Frontier)의 傳統에 의한 經濟活動의 重視라는 面이 存在한다

고 본다.

著者は美國을 經營文化로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장 重要했던 것은 小經營者라고 해서 美國經營文化의 特徵을 『店舖 또는 机上에 뿌리 박힌 文化』(a shop or desk-rooted culture) 라고 말하면서도 現代經營의 問題를 大企業의 發展에서 찾아 본다. 특히 大規模의 大量生産과 輸送機關이 企業의 經營管理를 重要하게 했던 것이다. 企業이 大規模化됨에 따라 그의 所有者와는 다른 專門的 經營者가 企業經營의 主導權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같은 所有와 經營의 分離에 의해서 經營目標과 經營動機가 變化하게 되었다. 즉 利潤動機는 變해서 安定과 個人的 威信이 새로운 重要性을 가지게 되고 小經營者의 利潤追求를 위한 競爭과는 달리 專門的 經營者는 經營問題를 長期的으로 社會的 背景에 비추어서 考察해야 하고 經營을 통해서 社會的 責任을 遂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經營者 性格의 變化는 20世紀初의 經濟的 및 經營上의 諸變化에 對應한 것이 지마는 그들의 變化에 대해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 것으로써 著者は 科學技術의 發達을 強調한다. 즉 第1次大戰을 前後한 工業部門에서의 一連의 技術革新은 첫째 企業으로 하여금 個人이 所有할 수 있는 範圍를 넓어서 大規模化키므로써 所有와 經營의 分離라는 새로운 經營制度를 가져왔고, 둘째로 새로운 專門家와 「그룹」活動을 필요하게 했고, 셋째로 高水準의 生産과 販賣를 할 수 있는 새로운 經濟制度를 가져왔고, 넷째로 새로운 建築資材에 의한 高層建物과 새로운 交通機關에 의한 遠距離郊外로부터의 通勤을 可能케 함으로서 本店의 大都市集中과 支店의 全國的 分散이라는 經營環境의 큰 變化를 가져왔던 것이다.

다음에 著者は 技術革新이 가져온 工業과 交通機關의 發展過程을 經營發展이라는 觀點에서 歷史的으로 考察한다. 著者は 第1次大戰을 劃期로 해서 그 以前과 以後에 있어서의 主要經濟活動部門을 資本消費量에 의해서 順位를 決定하고 있는데 그 順位는 戰前에는 建築, 鐵道, 電氣, 鐵鋼의 順이며, 戰後에는 建築, 電氣, 鐵道, 政府支出, 鐵鋼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建築業은 가장 重要한 經濟部門이었으나, 著者は 거기서는 技術革新이 크게 이어나지 않았으므로 經營發展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큰 問題가 없다고 해서 其他工業과 交通機關部門에 관해서 考察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電氣工業은 1900年~1930年에 電話 市內 및 郊外電車 蒸氣鐵道の 部分的 電化 그리고 都市의 動力 및 照明所의 設置 등에 의해서 資本을 크게 需要했고 그 結果 工業立地의 變化가 可能하게 될과 同時에 새로운 經營問題를 惹起시켰다. 한편 19世紀後半期에 發展한 鐵道는 처음부터 競爭이 甚했고 그것은 다른 經營과는 다른 立場에 있었다. 거기

서 鐵道會社는 鐵道の 効率을 改善하는 가장 安價한 方法으로서 (1) 競爭會社의 統合, (2) 勞動節約의 施設의 設置와 能率의 經營을 早期부터 實施했던 것이다. 그러나 1930 年에는 鐵道成長은 「피이크」에 達하고 그 以後는 自動車工業의 發展에 따라서 「트럭」 및 乘用車의 競爭에 의해서 相對的으로 衰退했다.

20 世紀 前半期の 美國에 있어서 經濟와 經營發展에 가장 重要한 意義를 가진 것은 自動車工業이었다.

自動車工業은 當時 出現하고 있던 20 世紀의 工業複合體의 一部였다. 이 새로운 工業複合體에는 自動車, 航空機部分品, 輕電氣器具, 合成化學, 自動車와 關連이 있는 유리, 고무 등의 諸 工業企業이 있고 이들 企業은 또한 새로운 原料 機械 그리고 工程을 開發했으며, 이들 企業의 所有權과 製品은 「듀 폰」(Du Pont)이라던가 「제네럴 모터스」(General Motors)와 같은 大會社에서 相互關聯하고 있는 것이다. 19 世紀末에 多數의 小企業으로 시작된 自動車工業은 生産面에서는 이미 高度로 發達한 供給者를 利用하고 需要面에서는 國內의 潛在大需要에 뒷받침 되어서 急速하게 發展해서 1908 年에는 「미시간」(Michigan) 東南部를 中心으로 大量生産段階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 該工業에서의 統合이 進行되어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Ford) 그리고 20 年代中葉에는 「크라이슬러」(Chrysler)를 包含한 3 社가 美國自動車生産이 80%를 支配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0 年代에 自動車工業의 複合體가 完成되었을 뿐만 아니라 自動車는 基本的 必需品으로써의 確固한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著者는 自動車生産에 있어서의 가장 重要한 變化는 1913 年과 14 年에 「포드」會社의 組立工程에서 이용된 「콘베어 벨트」(conveyor belt)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指摘하고 이 事實은 革命的인 意味를 가지는 것이며, 美國에서의 大量生産의 새로운 展開는 技術進步라기 보다는 經營革新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大量生産은 또한 割賦販賣의 擴大라는 「마케팅」과 結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해서 自動車는 1930 年까지에 社會的 慣習 및 態度 그리고 生活樣式에 注目할만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으며, 自動車工業이 誘發한 直接 間接의 莫大한 投資가 20 年代의 好況과 美國經營이 享受한 榮譽의 主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鐵鋼業을 包含해서 叙上한 諸 工業部門은 20 世紀에 새로운 發展을 하는 重化學工業과 함께 大會社를 中心으로 巨大한 資本投下를 가져왔던 것이다.

技術革新은 그 自體가 大會社이 出現하는 條件이었으나 특히 國內市場과 技術規模에서 世界를 「리이드」한 美國에서는 19 世紀 末에서부터 20 世紀初에 걸쳐서 大會社이 一般的으로 形成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비록 20 世紀 前半期에 企業의 法的構造는 持株會社

(holding company)의 支配關係가 1 段階型에서 多段階의 「피라미」型으로 發展했다는 것을 除外하면 根本的으로는 變化하지 않았으나 企業의 經營形態에서는 큰 變化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所有와 經營의 分離 그리고 會社運營에 있어서의 經營者의 役割의 重要性 增大이다. 거기서 著者는 經營者는 所有者에게 高配當을 준다는 것보다도 企業의 強化發展에 보다 關心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會社從業員의 利害關係가 所有者의 그것에 優先하게 되므로 大會社에서는 給料가 높고 社內 留保金과 研究投資가 많은 反面에 配當은 比較的 적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 著者는 企業의 大規模화와 經營形態의 變化에 따라 導入되게 된 科學的 管理制度에 注意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테일러」(W. Taylor)에 始作되는 經營管理科學의 追求는 첫째 原價計算技術의 改善, 中間經營者의 增加 그리고 「스탈 콘설탄트」(staff consultant)의 利用增大를 結果했고, 둘째로 能率的 經營者의 訓練을 위한 大學의 經營教育을 發達시켰고, 셋째로 能力本位의 人物選拔을 하게 되고 그러한 結果로서 넷째로 經營動機는 傳統的인 利潤最大化로부터 堅實하고 適切한 利潤 그리고 會社 및 經營者의 安全性과 威信이라는 形態로 變化했다는 것이다.

技術革新과 企業의 大規模화에 따른 새로운 經營發展을 考察한 著者는 다음에 그와 關連해서 20 世紀初에 크게 活躍한 銀行家들의 役割을 「모르간」(J.P. Morgan)을 中心으로 論한다. 「모르간」은 일찌기 鐵道와 工業分野에서 統合을 實現함과 同時に 金融部門에서는 自己를 中心으로 하는 最大의 「마니 트러스트」(money trust)를 形成함으로써 多數의 大企業에 대해서 金融上의 絶大的 權力을 行使했을 뿐만아니라 때로는 中央銀行의 諸 機能까지 遂行했던 것이다. 1913 年の 聯邦準備銀行法과 함께 「마니 트러스트」의 時代는 終熄하는 것이나 「모르간」을 中心으로 하는 大銀行家들은 「신디케이트」(syndicate)를 形成해서 第1 次大戰時에는 聯合軍에의 大規模의 借款을 提供함으로써 重要한 役割을 했던 것이다. 著者는 1929 年の 株式大暴落을 契機로 해서 投資銀行家의 時代는 마친다고 보고있다.

1929 年の 大變動은 銀行家들의 威信을 墜落시킨 뿐만 아니라 美國의 經濟哲學의 根本을 崩壞시켰던 것이다. 즉 自然的 經濟法則에 基礎를 둔 資本主義經濟의 自己調整力을 믿고 國家의 干涉은 最少限으로 해야 한다는 經營者들의 自由放任의 哲學은 根本的으로 修正되게 되었다. 『舊秩序의 通過』인 것이다.

III

第2 部에서 著者는 1930 年~1950 年の 새로운 經營發展을 經濟的 背景에서 考察한다.

이 時期는 大不況으로 시작되고 大戰을 거쳐서 戰後의 經濟發展을 遂行하는 時期이며 그 過程에서 不況과 繁榮과의 振幅이 前例없을 程度로 甚했다. 이러한 經濟的 背景은 經營만이 아니라 國民文化에도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

著者は 이 時期 특히 1940年 以後의 큰 資本投資와 經濟成長을 技術革新에 의해서 說明한다. 이 時期에 技術革新은 많은 工業部門에서 民間과 政府에 의해서 前例없을 程度로 推進되어 그 結果 消費面에서는 耐久消費財 등을 비롯해서 많은 新製品이 나타났었지만 著者は 그 中에서도 戰爭目的의 技術革新이 가장 重要하다고 보고 있다. 즉 넓은意味에서 變化는 新技術로 온 것이지만 좁은 意味에서 그것은 戰爭目的의 新技術로 온 것이다. 軍備를 위한 大資本投下가 景氣를 維持하고 上昇시켰으며, 그 結果 1940年代에는 그 以前에 比해서 1人當 國民所得 投資 生産이 모두 增加하고 雇傭構造가 變化하고, 그리고 賃金稼得者들의 所得이 增加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經濟的 變化는 당연히 經營의 自然的 環境을 크게 變化시켰다. 著者は 經營輸送手段 工場과 事務所의 位置 原料確保方法 등은 모두가 技術進步와 世界戰爭의 結果로서 變化했고 이들 諸 變化는 經營者に 새로운 諸 問題와 機會를 賦與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음에 說明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交通手段으로서의 自動車는 今世紀 最大의 資本需要部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經營環境을 크게 變化시켰다. 自動車の 普及에 의한 郊外의 發展 그리고 工場과 事務所의 地方擴散이 可能해지고 그것은 또한 政府의 住宅政策에 의한 郊外에의 住宅建設에 의해서 뒷바침 되었다. 經營者의 立場에서 보아서 自動車 長距離鐵道와 有効하게 競争할 수 있게 된 「트럭」 그리고 電氣는 企業擴散을 可能케 한 基本的인 것이었으며, 그 結果 工業이 南部와 西部로 擴散해 갔던 것이다. 또한 大企業이 不況에 對備해서 他產業에도 進出하여 危險을 多樣化함으로써 美國의 經營「패턴」은 보다 密接하게 結合된 利害關係者의 組織이 되었고 그것은 經營과 組織上의 問題를 提起했던 것이다. 第1次大戰은 美國의 經濟와 經營의 發展에 重要한 役割을 했다. 즉 그것은 完全雇傭을 達成하고 關連工場을 戰時 生産으로 완전히 轉換시키고, 1945년에는 國民所得의 57%라는 前例없는 戰費를 支出시켰던 것이다. 또한 大戰은 이미 進行하고 있던 經營發展을 促進시켰다. 즉 모든 輸送機關과 勞動力을 충분히 利用하려는 必要性은 低開發地域에의 分工場建設을 結果했는데 그것은 經濟的 側面에서는 南部와 西部의 工業化를 이룩하고 經營의 側面에서는 經營統合(executive coordination) 즉 競技者가 數千「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팀」을 管理한다는 問題를 提起했다. 이러한 問題에 加해서 政府行政委員會와의 密接한 接觸은 企業

으로 하여금 委員會에 의한 政策形成이라는 原則을 採用하게 했다. 또한 30年代의 高率 課稅는 經營者로 하여금 會社의 厚生施設, P.R. 研究 등의 免稅項目에의 支出을 增加시킴으로서 會社利益을 圖謀하게 했고, 그리고 政府 및 公共과 關係와 繼續的 原料供給의 問題는 大會社에게 長期計劃을 必要하게 했던 것이다.

다음에 著者は 大恐慌을 契機로 해서 나타난 經營과 政府와의 關係의 새로운 變化를 論한다. 前世紀에 不信의 對象이었던 美國의 經營은 今世紀初에는 高度의 大衆의 信賴와 威信을 갖게 되었으나, 大恐慌以後의 破綻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또다시 不信을 받게 되었다. 거기에 政府의 活動이 必要하게 되었던 것이다. 著者は 經營과 政府와의 關係에 있어서의 轉換點을 「후버」(Herbert Hoover)에 의한 復興金融公社(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의 設立(1932年)으로 본다. 이것은 自己調整經濟의 概念을 否定하고 政府가 積極的인 經濟干涉을 開始한 始初이며 이러한 傾向은 「뉴 딜」(New Deal) 政策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第2次大戰中에 보다 廣範히 推進되었던 것이다.

그 結果 美國의 經營生活에서 나타난 큰 變化를 著者は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즉 특히 戰爭에 의해서 (1) 實質賃金이 增加 (2) 勞動組合의 強化 (3) 政府政策에의 經營의 依存度의 增大이다. 특히 經營과 政府와의 協同은 이 時期의 經營構造와 經營行動에 있어서의 하나의 變化였다. 즉 政府機關은 經濟成長과 福祉向上을 위해서 經營과 關係를 가지게 되고 한편 經營의 側面에서는 企業의 主要政策決定은 政府支出 政府契約 租稅政策에 크게 依存하게 되어 이들 目的을 圓滑히 遂行하기 위해서 政府와 企業과의 人的 聯關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 結果 美國의 經營은 高度로 標準化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無限한 變差가 있다. 著者は 經營에서의 地域差는 1950년까지는 크게 解消되었다고 말하면서 가장 重要한 差異를 大企業과 小企業에서 찾아본다. 企業의 大規模化傾向과 그에 따라서 教育과 社會的 「리더쉽」이라는 觀點에서 「엘리트 그룹」인 有給經營者의 數的 增加에도 不拘하고 大多數의 平均的 經營者는 小企業의 所有經營者였다. 美國의 日常生活에서 經驗하는 『經營의 世界』는 各種의 小商工業者들로 構成되고 있으며, 大企業의 存在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經濟에 競爭的 進取의 性格을 주었고 小賣部門에서 小商店主들은 그들의 協同組織인 『任意連鎖店』(voluntary chain)으로서 大企業의 連鎖店(chain store)에 對抗했다. 中企業도 廣範히 存在해서 成功的으로 運營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著者は 現代經營制度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大企業과 그의 經營者들이었다고 말하고 그 意義를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1950년에 大企業은 全國的인

影響力을 가지고 있었다. 大企業이 地方的인 中小企業과 다른 것은 그것이 所有企業이 아니라 經營企業이라는 것이다. 大企業의 影響力과 所有 및 經營形態는 그로 하여금 自身の 規準과 行動原則을 가지게 했다. 즉 大企業의 經營者는 利潤의 積極的 追求보다도 企業이라든가 그 속에서의 人間關係의 安定을 圖謀하기 때문에 保守的 傾向이 있으나 한편 規模에 固有한 隨性과 利潤動機의 二次性을 克服하기 위해서 研究部를 設置 또는 擴大하고 社內的 販賣部와 生産部를 競爭시켜 그 點數를 比較會計記錄에 記錄시켰다. 또한 大企業은 必要한 모든 專門家를 둘 수가 있었고 最高經營者들은 여러가지 形態의 組織을 實驗하고 새로운 系列會社를 創設할 수 있었던 것이다.

經營者는 40年代와 50年代에 가장 急速히 增加하는 人口部分이었다. 經營者層에는 所得과 社會的 背景에서 廣範한 差異가 있으나 著者는 大企業의 經營者에는 하나의 共通點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즉 그들은 (1) 個人的 經營能力이 있다는 것 (2) 階層制에서 一定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3) 給料引上을 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4) 組織의 一部라는 것이다. 이들의 共通性格이 經營者를 한 「그룹」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著者는 經營者의 風采와 風習은 初期의 個人的 企業家보다도 一般大衆에 近似하다고 하면서 이와같은 標準화된 經營文化가 地方的 그리고 階級的 差別을 緩和시켰으며 또한 經營者에의 길은 才能있는 者에게는 開放되어 있으므로 部分的으로는 經濟制度의 發展으로 美國은 經濟的 및 社會的 民主主義에 前進했다고 말하고 있다.

끝으로 著者는 美國의 經營文化의 變化와 經營者의 使命에 言及한다. 20世紀의 前半期에 經營文化는 크게 變化했다. 특히 1930年代에 政府가 經濟活動에 積極적으로 介入한 結果 官僚制가 擡頭하고 그것은 大企業內部的 經營官僚制와 더불어 早期의 美國文化의 主要한 要素의 하나였던 經濟的 自由主義를 終熄케 했다. 즉 美國의 傳統的 個人主義的 自由主義哲學이 決定的으로 後退했고 또한 經營者는 自己會社만이 아니라 社會的 責任을 지게 되었다. 個人主義에 있어서의 傳統的 經營理念이 崩壞하는 한편 大量生産의 影響과 經營制度下에서 巨富의 社會的 威信도 또한 무너졌던 것이다. 著者는 이러한 새로운 經營文化 밑에서 美國의 民主主義는 發展했지만 그것을 더욱 發展시키기 위해서 經營은 더욱 努力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날 世界經濟를 「리드」하고 있는 美國經濟의 指導者인 經營者는 美國의 經濟發展과 美國의 世界的 使命을 遂行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役割을 遂行해야 한다고 結論하고 있는 것이다.

IV

以上에서 간단히 紹介한 바와 같이 本書에서 著者は 우선 20世紀의 美國의 經營發展을 經濟發展이라는 背景에 비추어서 論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 著者は 經濟的 그리고 經營的 發展을 招來한 基本的 原因을 技術革新에서 찾아보고 있다. 技術革新이야말로 經濟的 側面에서는 새로운 投資를 誘發함으로써 經濟成長을 이룩했고 經營的 側面에서는 企業을 大規模化 함으로써 새로운 經營制度를 招來했던 것이다. 다음에 著者は 美國經營에 있어서의 多樣性和 小經營의 一般性을 指摘하면서도 大企業을 中心으로 한 經營의 同質性和 經營社會에 있어서의 「엘리트」로서의 새로운 經營者의 役割을 強調하고 있다. 大企業에 있어서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 經營者의 새로운 社會的 責任이라는 概念 그리고 새로운 經營問題의 出現이 20世紀 前半期에 있어서의 經營發展의 基本的 內容을 이루는 것이며, 그들의 發展은 美國의 經濟發展에 큰 役割을 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의 文化 一般에 一定한 影響을 주었던 것이다.

本書를 一讀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著者は 本書에서 內容의으로 어떠한 獨創的인 說을 主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本書는 여러 分野에서 이미 이루어진 研究成果를 著者의 獨自的인 方法으로 綜合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注意를 끄는 것은 바로 『獨自的인 方法에 의한 綜合』인 것이다. 叙上한 바와 같이 本書는 單純히 美國經營制度의 史的 發展만을 論한 것이 아니라 經營者를 中間項으로 해서 經濟發展과 經營發展과의 相關關係 그리고 그것이 美國社會와 文化에 미친 影響에 관해서 綜合的인 展望을 歷史的으로 試圖한 것이다. 이러한 試圖는 基本的으로는 「콜」을 中心으로 하는 企業家史研究「그룹」이 指向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意味에서 本書는 企業家史研究「그룹」의 立場에 서서 이루어진 最近의 重要的 業績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本書는 現代 美國의 經營制度 나아가서는 經濟社會를 理解하는 데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